

#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lder Abuse in Relationship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군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영숙

Dept. of Home Management, Kunsan Nat'l Univ.  
Prof.: Yeong-Sug Yi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어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tent and the type of elder abuse and to examine the overall influence of abuse on abused.

A sample of 117 mothers-in-law who lived together their daughters-in-law was used and 7 mothers-in-law among them were interviewed in depth.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type of elder abuse between dyad which mother-in-law experienced was psychological abuse, verbal aggression and physical abuse.

2) Psychological abuse was the abuse which all elderly women experienced and verbal aggression was the abuse which most elderly women experienced, but physical abuse was the special event which a few elderly women experienced.

3) The influence of abuse on abused and the extent of elder abuse varied with the type of their experience.

### I. 문제의 제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 결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노인학대 문제이다. 노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학대받는 노인도 적었던 과거에는 노인학대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현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의 수

가 많다는 것 외에도 노인이 가진 자원이 더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핵가족과 부부중심의 가족으로의 변화가 가족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켰고 따라서 노인학대 가능성이 커져서 노인학대가 더 이상 희귀한 사건으로 여겨지지는 않게 되었다. 1978년의 최초의 공식적인 보고(Quinn & Tomita, 1986: 28)로 시작된 노인학대와 관련된 보고들은 노인학대가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가족문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해 주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5.7% 정도로(통계청, 1995)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려고 있으나 가족 내에서의 노인의 지위는 서구화와 근대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오히려 현저히 하락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부양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약화된 자녀와 노부모가 이루는 현재의 기혼자녀-부모관계는 과거의 그것과는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가족이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강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노인복지제도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외에 노인을 부양할 다른 사회복지기관이 충분하지 못하여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노인의 의존성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게되고 이 부담은 부모 자녀사이에 긴장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고부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가족에서 고부관계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여성이 같은 생활공간으로 혼입해 같은 영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부정관계(이광규, 1981: 18)로 규정지어질 정도로 문제시 되어왔던 관계로 그들의 관계는 주로 며느리의 시집살이라는 획일적인 양상으로 특징지어졌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의 변화요인이 고부관계의 틀도 바꾸어 놓았다. 며느리 지위의 상대적 상승과 함께 시어머니 지위의 하락으로 시어머니가 이제는 더이상 며느리 위에 군림하는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등 가정에서 시어머니의 위치는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또한 여자노인은 남자노인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가족과의 관계도 긴밀할 뿐더러 남자노인에 비해 수명

도 길어 건강문제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보다 많다. 이러한 경우에 며느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최해경, 1991) 자녀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의존이 자녀로 하여금 그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학대하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Hickey & Douglass, 1981) 여자노인이 며느리에 의해 학대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더구나 고부관계에 있어서는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가 있을 뿐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의 실태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양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리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은 고부관계에서 어떤 학대행위를 경험하는가?

둘째, 여성노인이 며느리에게서 경험한 학대는 그 유형별 양상이 어떠한가?

① 고부관계에서 여성노인이 받는 학대는 어느정도인가?

② 여성노인은 며느리의 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들은 그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인학대의 그 다양한 정의들에서 나타난 몇가지 공통점(Lachs & Pillemer, 1995: 437)을 찾아봄으로써 노인학대의 개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1)</sup>

첫째, 노인학대란 항상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는데 이때 신체적 학대의 의미는 신체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행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신체적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는 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Lau & Kosberg(1979: 12)는 때리기, 일상적인 면에서 소홀히 돌보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의료적인 면에서 소홀히 돌보기, 감독을 소홀히 하기 등을, Godkin 등(1989: 211)은 손바닥으로 치기, 멍들게 하기, 성적으로 괴롭히기, 칼로 베기, 화상 입히기, 신체적인 구속 등을, Paris 등(1995: 49)은 밀기, 꼬집기, 억지로 먹이기, 성적인 공격, 신체적인 구속 등을 신체적 학대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둘째, 노인학대의 정의에 심리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킨 연구가 많다. 이때 사용한 심리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의 의미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행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 또한 신체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연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Lau & Kosberg(1979: 11)는 언어적 침해, 위협, 공포주기, 격리시키기 등을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Godkin 등(1989: 211)은 욕 퍼붓기, 애기같이 취급하기, 놀라게 하기, 협박하기, 창피주기 등의 행위를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물질적 착취행동이나 돈이나 재산을 착복하는 행동 및 홀대를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그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경향도 상당하다.

선행 연구에서 노인학대에 대해 이와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인 면을 제외한 정신적, 신체적인 면에서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주는 행위만을 노인학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Lau & Kosberg(1979: 11)는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및 권리의 침해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범으로써 학대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시도를 처음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어 그후에도 Chen 등(1984: 132)은 신체적 학

대, 신체적 홀대, 성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분류했다. 또한 Sengstock & Hwalek(1987: 24-30)은 신체적 학대, 신체적 홀대, 심리적 학대, 심리적 홀대, 물질적 학대, 권리의 침해로 분류했고, Godkin 등(1989: 211)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적극적 홀대, 소극적 홀대로 분류했으며 Paris 등(1995: 49)은 신체적 학대, 신체적 홀대, 심리적 학대, 심리적 홀대, 경제적 또는 물질적 학대, 경제적 또는 물질적 홀대로 분류하여 노인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2. 노인학대의 양상

### 1) 발생빈도

노인학대 연구의 초창기에 Lau & Kosberg(1979: 11)는 만성질환센타의 60세이상 환자 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9.6%)명의 노인이 매년 학대 당하며 그 중 74%가 신체적 학대, 51%는 심리적 학대를 당한다고 보고하여 사태가 심각함을 일깨워 주었다. Pillemer와 Finkelhor(1988: 51~57)는 Boston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202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면접한 결과 3.2% 노인이 학대를 당하였는데 2%는 신체적 학대, 1.1%는 언어적 공격, 0.4%는 홀대를 당하는 노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학대받는 경우가 혼자 사는 노인이 학대 받는 비율보다 높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1990년대에 미국 의회 노인문제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년 백만 내지 이백만 정도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US 국회: 1991). 이와같이 노인학대의 발생율은 연구보고마다 다르긴 해도 노인학대가 ‘숨겨진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학대당하는 노인은 보고된 것을 훨씬 상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학대 발생정도를 조사한 바 없지만 근래 언론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일련의 노인된 부모의 유기, 방치 사건등이 우리 사회에서도 며느

1) 외국 문헌에서 학대와 관련된 용어를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이 번역했음을 밝힌다.

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 emotional abuse: 정서적 학대 psychological abuse: 심리적학대  
material abuse: 물질적 학대 sexual abuse: 성적 학대 verbal abuse: 언어적 학대  
elder abuse, elderly abuse: 노인학대 neglect: 홀대

리를 포함한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함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 2) 학대의 영향

학대를 당한 노인이 어떻게 영향받는지 살펴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학대를 당할 때 그 노인이 어떤 행동으로 대응하는지를 밝혀려고 하는데 관심을 둔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학대당했을 때 노인이 취하는 행동을 조사한 한 연구(Lau & Kosberg, 1979: 13)에서 학대당한 노인들 중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노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체념, 위축, 공포, 우울, 분노 등의 반응이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은 그렇게 높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Chen 등 (1981: 11~12)의 조사에서도 유사하였다. 그들은 전체 피해자의 60%가 위축 반응을 보였고 분노나 공포, 우울 등의 반응이 많은 반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는 노인은 학대당한 노인의 17%밖에 되지 않음을 밝혀서 학대 당한 노인이 외부의 요청을 청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기적인 영향은 그 후 신체적 및 정신적인 면에 해를 가져와서 자아상을 낮추게 하고 아울러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연구결과(Chen 등, 1981: 12)와 함께 학대당한 후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도 곤란을 겪으며 정서적인 고통을 겪는 등 신체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런 영향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에게 더 심하다는 점을 밝힌 결과(Pillemer & Finkelhor, 1988: 56)는 학대의 장기적인 악영향을 지적해주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흑인계, 백인계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당할 때 외부에 요청을 취하는지 여부를 비교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 학대 당할 때 외부에 요청을 하지 않는 경향은 한국계 노인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볼 수 있어서 한국계 노인은 참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음으로써 개인적인 행복보다 가족의 화모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자신에게는 더욱 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

혀주고 있다(Ailee & Oliver, 1993: 393).

이와같은 면을 고부관계에 관하여 우리사회에서 조사한 연구로는 며느리와 언쟁시 시어머니가 취하는 행동을 조사한 것으로서 혼자 속으로 참는 행동이 가장 많고 남편 등 타인에게 호소하기도 하는 방법이 그 다음 순위로서 주로 소극적 방법을 많이 사용함을 밝히고 있음으로써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우리사회에서도 노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이경애, 1983; 고정자·김갑숙, 1988). 더구나 우리나라 여자노인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박경란·임춘희, 1989: 147)와 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효에 대한 기대도가 노인의 우울증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Gary 등, 1995: 831~852)도 학대가 노인에게 주는 영향과 관련지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부관계에서 경험하는 학대가 그들의 삶의 질에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수렴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두가지 방법을 함께 시도하였다. K시에 거주하는 며느리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여성노인 117명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알아보는 문항과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학대행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Straus가 개발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을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번안하여 1994년 6월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수정·확정하였다. 각 문항은 며느리와 동거하는 동안 질문지의 내용을 노인이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를 알기 위하여 4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없다'라는 문항만 빼고 모두 학대로 보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알기 위하여 할머니는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작성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의 1점에서부터 '아주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

각한다'의 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 나 노인정, 교회와 사찰 등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친근감을 형성한 후 며느리와 동거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동거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별 면접하였다. 심층 면접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개별 면접한 노인중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 의도를 가진 노인을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졌는데 1994년 10월에서 1995년 1월에 걸쳐 응답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면담하면서 녹음하였다. 녹음한 것을 후에 문자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되도록 피험자의 응답을 그대로 문자화하였다. 심층 면접을 할 때 질문의 내용이 극히 사적인 것이므로 처음에 대답을 꺼려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여러번 방문하여 친숙해진 후 본 질문을 시도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일단 시작된 이후에는 오히려 중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이어서 심층면접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IV. 연구결과의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부(10.3%)는 50대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나이 60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하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며느리에 의해 행해지는 시모의 학대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며느리를 포함한 가족을 경험해 본 사람은 조사에 포함시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 포함시켰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 2. 학대행위의 경험

노인과 며느리의 전반적인 관계를 타진하기 위해 질문지의 질문에 앞서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극히 일부의 노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인이 처음에는 「괜찮다」 「다른 집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N)	백분율(%)
연 령	50대	12	10.3
	60대	41	35.0
	70대	44	37.6
	80대	20	17.1
계		117	100.0
학 력	무	88	79.3
	6년 이하	22	19.8
	6~12년	1	0.9
계		111	100.0
직 업	무	84	75
	유	28	25
계		112	100.0
동거자녀의 경제수준	상	35	29.9
	중	50	42.7
	하	32	27.3
계		117	100.0
노 인 의 경제수준	넉넉하편	27	23.1
	보통	54	46.2
	부족한 편	36	30.8
계		117	100.0

\* 사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자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며느리들보다 못하지는 않다」라든지 「요즘 사람 같지는 않다」면서 불만섞인 표현을 망설이던 노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 속 깊이 감추어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는 점점 강해짐을 발견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연구자가 만난 노인들 중에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 감정을 토로하지 않는 노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학대행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에는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표 3>. 그 중에서도 부루통하는 행위와 말을 하지 않는 행위는 전체 노인의 71.8%와 65.0%가 경험했다고 보고함으로써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흔히 취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극심한 학대행위는 빈번

〈표 2〉 심층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사례	학대유형	연령	종교	교육수준 (한글해독능력)	경제수준	현재의 지주상태	가해사	자녀	남편	건강상태
1	정서적학대	78	무	무학(가능)	중	장남가족과 동거	큰며느리	아들1, 딸4	무	좋은편
2	정서적학대	85	기독교	무학(불가)	하	장남가족과 동거	큰며느리	아들2, 딸2	무	매우좋은
3	정서적학대	81	기독교	무학(가능)	중	장남가족과 동거	큰며느리	아들1	무	좋은편
4	언어적학대	76	무	무학(가능)	중	혼자살	큰며느리	아들2, 딸3	무	좋은편
5	언어적학대	74	무	무학(불가)	하	장남가족과 동거	큰며느리	아들1, 딸1	무	좋은편
6	신체적학대	68	무	무학(불가)	상	막내딸가족과 동거	큰며느리	아들3, 딸5	유	나쁨 (당뇨병)
7	신체적학대	83	기독교	무학(불가)	하	혼자살	막내며느리	아들2, 딸1	무	매우나쁨

〈표 3〉 노인이 경험한 학대행위

(단위 : N(%))

학 대 행 위	무	유	계
소리지르다	57(48.7)	60(51.3)	117(100)
욕을하다	85(72.6)	32(27.4)	117(100)
부루통하다	33(28.2)	84(71.8)	117(100)
말하는 도중 나가버리다	63(53.8)	54(46.2)	117(100)
비꼬면서 말하다	59(50.4)	58(49.6)	117(100)
말로 위협하다	89(76.1)	28(23.9)	117(100)
필요한것(먹을것, 입을것 등)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	62(53.0)	55(47.0)	117(100)
말을 하지 않는다	41(35.0)	76(65.0)	117(100)
고의로 하루종일 혼자 있게 한다	77(65.8)	40(34.2)	117(100)
무엇을 아무데나 던진다	96(82.1)	21(17.9)	117(100)
무엇을 할머니를 향하여 던진다	108(92.3)	9( 7.7)	117(100)
밀거나 움켜잡는다	110(94.0)	7( 6.0)	117(100)
때리려고 위협한다	111(94.9)	6( 5.1)	117(100)
때리다	115(98.3)	2( 1.7)	117(100)
뒹어 놓는다	116(99.1)	1( 0.9)	117(100)
가두어놓는다	116(99.1)	1( 0.9)	117(100)

히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히 「뒹어놓는다」, 「가두어 놓는다」 등의 학대행위는 단 1명의 노인만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 비율의 많고 적음보다는 바로 이러한 노인학대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3. 유형별 학대양상

학대 행위들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국 노인에 대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 언어적 공격, 신체적 학대 등 3유형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며느리와와의 전반적인 관계를 타진하기 위해 질문지의 조사에 앞서 질

〈표 4〉 학대행위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신체적학대)	요인2 (언어적공격)	요인3 (정서적학대)	Communality
소리지르다	.01269	.84738	.05771	.72154
욕을하다	.14059	.77399	.07128	.62391
부루통하다	-.06026	.18088	.68687	.50814
말하는 도중 나가버리다	.04594	.06230	.73519	.54650
비꼬면서 말하다	-.02444	.48374	.41504	.30516
말로 위협하다	.19612	.51462	.08059	.30979
필요한것(먹을것, 입을것 등)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	.05047	.21611	.46815	.26842
말을 하지 않는다	.10282	-.39994	.73662	.71314
고의로 하루종일 혼자 있게 한다	.05246	.02379	.38756	.15352
무엇을 아무데나 던진다	.27511	.39726	.15165	.45540
무엇을 할머니를 향하여 던진다	.30092	.33162	.39335	.43906
밀거나 움켜잡는다	.52898	.50150	.32126	.63453
때리려고 위협한다	.74228	.49088	.04532	.79400
때리다	.92826	.17186	-.02280	.89173
묶어 놓는다	.94943	.06084	.05677	.90834
가두어놓는다	.94943	.06084	.05677	.90834
Eigenvalue	5.20	2.24	1.84	
변량(%)	32.5	14.0	11.5	58.0

〈표 5〉 유형별 학대경험유무

(단위 : N(%))

유형	무	유	계
정서적학대	0(0)	117(100)	117(100)
언어적공격	33(28.2)	84(71.8)	117(100)
신체적학대	110(94.0)	7(6.0)	117(100)

〈표 6〉 노인학대의 경험비율

연구자	Lau & Kosberg (1979)	Clark (1981)	Fulmer등 (1984)	U. S국회 (1985)	Pillemer & Finkelhor (1988)	Ogg (1993)
비율	9.6%	10%	7%	4%	3.2%	5%

적인 조사로 얻은 그 결과를 학대유형으로 나누어 학대 경험율을 양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서적 학대는 모든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학대임을 발견했다.

언어적 공격을 경험한 노인도 전체의 71.8%로서 며느리가 노인에게 가하는 언어적공격도 특수한 경우가 아님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신체적 학대는 전체의 6%만이 경험한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유

형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외국에서 노인학대를 조사한 결과 최대 10%정도의 학대를 보고한데 비해서 본고의 결과는 대단히 높은 비율의 학대경험이었다 <표 6 참조>.

이와 같은 큰 차이에 대해서 몇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된 미국의 노인학대 연구계에서 현재까지도 그 발생률을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대의 정의가 동일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까지를 학대로 보는가에 따른 차이에서 생긴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행위를 동거기간동안 단 한번이라도 경험했으면 그것도 학대라고 규정하는 등 학대의 범위를 넓게 잡는 방법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생겼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대를 가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차이에서 생긴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외국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배우자, 자녀, 기타 부양자에 의해 자행되는 학대를 조사한 것인데 본고에서는 동거하는 며느리에게서 당한 학대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가해자와의 동거는 학대를 더 빈번하게 유발한다는 결과로 본고와의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Pillemer & Finkelhor, 1988).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어떤 유형의 학대가 빈번한가를 조사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노인학대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는 언어적 공격이나 정서적 학대보다 드물게 발생하는 학대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보다 신체적 학대가 많다는 Hickey & Douglass(1981)나 Pillemer & Finkelhor(1987)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나 그 외의 연구와는 유사한 경향이다 <표 7 참조>.

#### 1) 정서적 학대

이 유형에는 부루통하거나 시어머니가 말하는 도중 나가버리거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등 필요한 것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행위가 속하였다. 또한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고의로 하루종일 집에 혼자있게 하는 등의 행위도 정서적인 학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이 중 어떤 한 행위를 한번도 안한 며느리는 없었을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학대행위로 지적되었다 <표 5>. 이런 행위를 서슴치않고 행하는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는 성가신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것 같았다.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하루종일 말을 안해. 그러다가도 지 새끼오면 난리가 나, 금방 얼굴이 달라지고 내가 그래서 한마디 할라치면 난 밥도 안주고 즈들 끼리 먹어”(사례2)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들어와, 내가 다 치웠지 뭐”(사례3)

“밥을 조금 밖에 안 줘, 더 퍼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퍼 먹어? 눈치하는데, 얼굴빛으로 뻔히 알아. 난 배고픈 것이 제일 힘들어”(사례1)

그러나 이 유형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Alice & Oliver, 1993: 393)에서도 한국계노인이 다른 문화권 출신노인보다 가장 좁은 범위의 것만을 학대라고 인식한다는 결과를 밝혀주어 우리사회가 학대에 대해 덜 엄격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며느리의 그러한 행위의 원인은 며느리가 고의로 한 잘못만이 아니고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거나 또는 인간관계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이해심도 가지고 있었다. 즉 학대의 원인을 가해자인 며느리에만 돌리지 않고 피해자인 자신 때문이거나 고부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된 원인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한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며느리와 같은 행위로 대응하는 대신 참거나 체념하거나 또는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또는 아들이나 기타 아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였다.



〈표 7〉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단위 : %)

연구자	정서적 학대	언어적 공격	신체적 학대
Lau & Kosberg(1979)	44		17
Hickey & Douglass(1981)	12.5(홀대)	34	62.5
Pillemer & Finkelhor(1987)	51		74
Godkin 등(1989)	72.9		44
Carl Neiburger(1991)	44.7		27.8

“내가 참아야지 다 조용해, 머 때미(무엇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 아들에게 물어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진짜로 허른 큰일나. 올다가도 이런디(뭣) 나와서 얘기 하면 잊어버려.” (사례1)

“다 내가 오래 살아서 생긴 일이야. 내 딸도 그렇지 몰라. 내가 죽으면 끝나니 어서 죽어야 해. 요즘 누가 늙은이를 좋아해. 잔소리 하지, 더럽지, 구식이지, 미운 짓 하지” (사례3)

“어떻게 맨날 좋아. 졸 때도(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그렇기보다 헐(그런가보다해). 같이 허른 씬(싸움)이지 뭐. 쥐어 뜯고 싸우는 거보다 참는게 나(나아)” (사례2)

이는 일부는 오랜 인생경험에서 얻어진 너그러움과, 이와 같은 며느리의 학대행위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짢은 감정이 쉽게 잊혀졌거나 또는 며느리가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정서적학대를 가하는 며느리는 노인을 성가신 존재로 여겨서 웃어른으로 모시려는 태도가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대를 당하는 노인인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너그러움을 가지며, 따라서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언어적공격

이 유형의 학대를 당한 노인은 주로 며느리가 소

리지르거나 욕을하거나 비꼬면서 말하거나 말로 위협하는 등 언어로 하는 학대를 경험했다고 호소하였다. 이런 행위를 하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뒷사람으로 모시려는 기본적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저질 언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여 시어머니를 마치 옛날 하인 다루듯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나보고 밤버러지라고 하며 나가라고 헐. 그래서 나는 산 밖에 갈 곳이 없으니 못 나간다고 대꾸하면 산으로라도 가라고 헐(해).” (사례5)

“천만원 줄테니까 눈에 보이지 마라고 해. 오냐 내나라 했더니 걸레를 똥똥물쳐서 던지고 나가버리네.” (사례4)

이 유형에 속하는 시모들은 정서적학대를 당한 노인인에 비해서 며느리와 관계가 처음부터 좋지않아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면서 며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이. 우리 아들을 강탈해 갔어, 꼭 장희빈 남피듯이 헐(장희빈 같이 행동해). 요물같이 생겨서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라고 그렇게 내가 (결혼을) 반대했지.” (사례4)

“연애해서 들어온 가시네티(여자인데), 무선(무서운) 것이 없어. 지가 최고여. 배우지도 못한것이. 우리아들은 대학 나왔는다. 어디서 감히.” (사례5)

따라서 며느리가 언어로 공격할 때 노인 자신도

같은 행위로 대응하는 등 정서적학대를 당한 노인이 참고 회피하는 등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반면 직접 맞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너 같은 거하고 말하느니 차라리 개하고 말한다고 하며 나도 막 같이 혀.” (사례5)

“가 짧으다(아니 짧다)고 하면 내가 뭐가 가 짧으냐고 혀. 시에미가 사람같이 안 보이냐며 달라들어. ‘네 이 x, 네가 나 죽일라고 혀? 죽일라면 너죽고 나죽자고 혀.’” (사례4)

언어적 공격을 경험한 노인이 며느리에게 같은 행위로 대응하는 경향은 그들이 며느리의 이러한 행위의 원인을 찾을 때도 동일하였다. 즉 며느리의 가정교육이나 며느리의 기본적 자질 등 가해자의 특성만으로 원인을 찾는 경향을 보여주어 정서적 학대를 당한 노인이 가해자에게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과 대조적이었다. 정서적 학대가 학대 중에서는 가장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노인 자신도 그것을 학대로 여기지 않는데 반해서 언어적 공격으로 가해지는 학대는 언어적 공격 뿐 아니라 이미 정서적 학대가 가해졌거나 또는 정서적 학대와 함께 가해지는 학대이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노인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며느리 집안이 상놈 집안이며, 그 x 애비도 사기꾼여, 그러니 배운게 그 뿐이지 안꼴어(그것뿐이지 않겠느냐).” (사례5)

“뭇 봉개(보니까) 그 x 이 도화살이 들었어. 그래 내가 결혼을 반대했지. 그래서 날 잡아먹을라고 혀는거여. 도화살 들은 x 은 서방도 잡아먹고 시에미도 잡아 먹는다.” (사례4)

그러나 언어적 공격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노인들이 비록 학대 당할 때 같은 행위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관계가 더 악화되어 며느리와 헤어지는 것을 바람직한 선택사항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아들 집을 나와 독립가구를 형성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혼자 살게된 후 겪는 외로움의 극복이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학대를 당한 노인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삶에 대한 평가를 조사해보니 언어적 공격을 당한 노인이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학대를 당하지 않은 노인보다 더 적음을 <표 8>에서 볼 수 있었다.

“오죽허든 며느리 x 에게 욕을 다 먹어. 따로 살 돈이 없어 얻어 먹으게 무시허는거여. 이게 사는게 아녀. 왜 귀신이 날 안 잡아가는지 몰라. 헛 살았어.” (사례5)

“난 안먹고 키운 아들이여. 근디 이렇게 당혀. 보고싶어. 아들과 손주녀석이 보고싶어. 생각허든 분혀. 울어도 분이 안풀려. 뭇때미(때문에) 살았나 몰라.” (사례4)

이상을 요약해보면 언어적 공격을 하는 며느리는 노인을 옛날 하인 다루듯 함부로 대하며, 이러한 경험을 한 노인도 며느리의 기본적 자질 등으로 그 원인을 찾고 맞대응하는 등 고부관계 자체가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노인이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 같았다.

### 3)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한 노인은 극히 일부로서 전체의 94%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보고할 정도로 노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는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뭍어놓는다’ 나 ‘가두어 놓는다’ 등 극심한 학대행위는 「밀거나 움켜잡는다」와 같은 상대적으로 덜 심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비해 극히 특이한 경우로 간주되는 사건이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며느리에게는 노인이 원수와 같은 보기 싫은 존재로 생각되어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였다.

“내가 비운게(비오니까) 밭에 가서 싹좀 나왔나 봐라 했더니 욕하고 달라들면서 왜 나만 잡아먹을라고

〈표 8〉 학대유형에 따른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학 대 유 형	경 험	N	자신의 삶의 평가		t
			평 균	SD	
언어적 학대	무	33	2.79	1.08	7.56**
	유	84	3.36	0.97	
신체적 학대	무	110	3.13	1.02	5.36*
	유	7	4.00	0.92	

\* P < 0.05

\*\* P < 0.005

하냐고 해. 그래서 내가 몇마디 두런거렸더니 머리채를 잡고 달라들어. ‘죽여라’고 달라들었으니 대갈박(머리)을 벽에 부딪치면서 ‘이× 짱짱하네’ 하고 또 부딪쳐. 피가 철철 나는디도 더허. ” (사례6)

“왜 막내와 사나고 큰집으로 가라고 해서, 못간다고 하니 날마다 씹(싸움)이지. 먹살을 잡고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 그때 다친 다리가 지금도 안 나셨어(나왔다). 서방도 그러. 밖으로 내쫓고 난 뒤 서방이 문닫았어.” (사례7)

노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며느리의 잘못과 함께 아들의 잘못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았다. 아들은 학대하는 며느리를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학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모른체 하는 등 아들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듯 하였다. 또한 노인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며느리는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도 거칠게 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들도 학대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에게만 그러는게 아니고 서방에게도 그러. 서방에게도 ‘××놈’, 지 새끼에게도 ×놈 그냥 욕이 입에 붙었어. 구시장 가봐. 거짓말 아녀. 유명혀. 깡패여. 남자도 이겨. ” (사례6)

신체적 학대의 또 하나의 특성은 정서적 학대는 물론이고 언어적 공격과 같은 다른 유형의 학대와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나 언어적 공격 등 보다 덜 심한 다른 유형의

학대로 이미 노인을 괴롭혀 왔던 며느리만이 쉽게 감행할 수 있는 학대로 여겨진다.

“돈이 없어서 큰아들 못 갈켰어(가르켰어), 그게 죄여, 시집 온 날부터 그것때매(때문에) 트집여. 말대담은 예사고 샷대질에 ××년은 보통이었어. 내가 솟곳 바람으로 쫓겨난 그날까지 그랬어. ” (사례6)

“내가 돈좀 달라고 했드만 얼굴이 싹 변혀. 언제 말겼냐고 허. 기가 막혀서 ‘내가 니 남편 키웠다’고 했드니 델고 나가라고 했어. 맨날. ” (사례7)

신체적 학대를 당한 노인은 언어적 공격을 당한 노인과 같이 며느리와 같은 행위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보지만 힘이 없고(사례7), 병이 들어서(사례6) 결국은 며느리에게 쫓겨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나중에 내가 보따리 갖고 나왔어. 살수가 없어서. 옆집 사람이 충청도 장항에서 서천가는 길에 빈집이 많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가서 살다가 (빈집이라) 너무 무서워서 딸이 여기에 방하나 얻어 주었어. ” (사례7)

“하도 두들겨 패서 아껴 나왔어. 못살어. 막내딸이 델고(테리고) 왔어. 걷지도 못해서 이리로 업고 왔어. 대판거리로 싸웠지.” (사례6)

그러나 아들집을 나오게 된 것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고 오히려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언어적 공격을 당한 노인이 며느리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노인이 경험한 학대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일 때 며느리와는 동거는 고려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며느리에 게 당한 학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게 이끌었다. 신체적 학대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본 결과 신체적 학대를 당한 노인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었다 <표 8 참조>.

“눈치 안 볼게 좋아. 그래도 저번 생일에는 참 안 좋대. 돈 한푼도 없고 흰죽 한 숟가락 먹을랑게 안넘어가. 그래서 길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더니 손자가 오길래 불러서 ‘너 니 애미에게 가서 미움고 또 미움고 또 미워도 만원만 달라고 허’ 했더니 간지 한시간이 넘게 안와. 왜 안죽는지 몰라. 자식 바라보고 사는×은 바보여.” (사례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며느리는 노인을 원수와 같은 존재로 대하였다. 그들은 정서적 학대나 언어적 공격도 함께 사용해 왔으며 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행위로 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노인도 맞대응해 보지만 결국은 쫓겨 나게되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 할 뿐이다.

## V. 결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진 고부관계 연구는 상당수가 며느리를 그 피해자로 보고 접근함에 따라 근래의 고부관계의 지위변화를 실제 연구에 적용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양상을 파악하여 지위변화로 나타난 현대의 고부관계의 일면을 진단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될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서적 학대는 모든 노인이, 언어적 공격은 약2/3 노인이 경험했다고 보고할 정도로 노인에 대한 며느리의 학대가 상당하였다. 또한

신체적 학대도 6%의 노인이 경험했다고 하여 노인학대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부루통하는 행위나 말을 하지 않는 행위 등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은 행위는 며느리가 가장 흔히 취하는 학대행위이며, 가두어 놓는다는와 같은 극심한 학대 행위는 빈번히 발생하지는 않는 특수한 경우에 속했다.

며느리가 노인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는 정서적 학대, 언어적 공격, 신체적 학대 세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부인학대 등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유형과 유사했다. 학대유형별로 그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정서적 학대가 가장 흔한 학대였는데 노인들은 그것을 학대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며느리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여기므로 적극적으로 같은 행위로 대응하기 보다는 참거나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언어적 공격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정서적 학대와 언어적 공격을 함께 경험한 노인들로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따라서 며느리가 학대를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은 행위로 대응하는 방법을 취했다. 신체적 학대는 극히 일부의 노인만 경험하는 특수한 학대유형이다. 이 유형은 정서적 학대, 언어적 공격과 함께 존재하는 유형으로 피해를 당한 노인은 며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해보지만 결국은 며느리와 별거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적 공격이나 신체적 학대와 같은 심한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신의 삶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와 언어적 공격은 일반적으로 흔한 유형이고 신체적 학대는 특수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공격으로, 정서적 학대나 언어적 공격은 신체적 학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어야만 치명적인 학대도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고부관계에서도 노인학대는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고부관계 연구는 일반

적이 아닌 양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건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모쪽만을 조사한 결과였지만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노인학대 연구는 며느리 쪽도 조사하여야만 보다 믿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모와 며느리의 특성을 학대유형과 관련시킨 연구가 이루어져야 노인학대의 원인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대를 당한 노인이 학대에 대응하는 방법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학대 자체를 줄일 수 있거나 고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대를 당한 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유형별로 개발, 교육함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학대는 자녀, 배우자, 기타 부양자등 다양한 가해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며느리 이외의 기타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는 남자노인을 포함한 노인학대 연구가 조사, 비교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면접이 가능한 노인만을 임의 선정하였고, 피해자의 회고에만 의존한 조사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 【참 고 문 헌】

- 1) 이광규,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일지사, 1981.
- 2) 고정자·김갑숙, 한국사회에 있어서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25집, 1988, 205~230.
- 3) 박경란·임춘희,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생활만족도, 인제논총 5권 1호, 1989.
- 4) 이경애,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서울에 거주하는 시모를 중심으로, 숙대석사학위논문, 1981.
- 5) 최해경, 심신기능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 부담의 한국에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호, 1991, 175~205.
- 6) 통계청, 통계 분석 자료모음, 1995.
- 7) Ailee, M and Oliver W,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33(1), 1993, 386-395.
- 8) Chen, PN, Bell, SL, Dolinsky, DL, Doyle J and Dunn M, Elderly abuse in domestic settings: A pilot stud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1), 1981, 3~17.
- 9) Clark CB, Geriatric abuse-out of the closet, Journal of the Tennessee Medical Association 77, 1981, 460-481.
- 10) Dorgan, M. The Crime of the '90s, SIRS Aging 4, 1991-1994.
- 11) Gary, RL, Julie, KN and Raymond, TC, Depression among older parents: The role inter-generation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1995, 823~833.
- 12) Godkin, MA, Wolf, RS and Pillemer, KA, A case-comparison analysis of elder abuse and neglec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8(3), 1989, 207~225.
- 13) Hickey, T and Douglass, RL, Neglect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s: Professional's perspectives and case experiences, The Gerontologist 21(2), 1981, 171~176.
- 14) Lachs, MS and Pillemer KA,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1995, 437~443.
- 15) Lau, EE and Kosberg, JI,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Aging 302, 1979, 10~15.
- 16) Ogg, J, Researching elder abuse in Britai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5(2), 1993, 37~54.
- 17) Paris, BE, Meier, DE, Goldstein, TM and Fein, ED, Elder abuse and neglect: How to recognize warning signs and intervene, Geriatrics 50(4), 1995, 47~51.
- 18) Pillemer, KA and Finkelhor, D,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28(1), 1988, 51~57.
- 19) Sengstock, MC and Hwalek M, A review and analysis of measure for the identification of elder abus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0

- (3/4), 1987, 21~36.
- 20) Straus, MA,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1979, 75~88.
- 21) U.S.Congress House Select Committee on Aging, Elder abuse: What can be done? In Lachs MS and Pillemer K.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1995, 437~443.